

文壇의 「여성성」 바람이 불고 있다. 23년전부터 각 신문 신춘문예와 문예지 작품모집단선 작품에 30대 이후 여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 이번 10·11월

文壇신인상

主婦들이 휩쓴다

에는 崔一玉(41) 동서문학신인상(趙陽喜 40·女性東亞文壇新人) 車春鎬(38·월간문학신인상) 李惠淑(34·소설문학신인상) 등이 연이오 30대 이후 여성들이 신인상을 문壇을 석권하고 있다.

이것이 최근 부쩍 늘었다. 「문학의 꿈」 어린이잡지부터 잡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취직했다가 결혼해 세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다 5년전부터 다시 습작을 시작했으니 「문학」을 개발해 자신의 일을 찾는 데 나이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쉬지 않고 열심히 하련다」 이카로스의 날개」라는 작품으로 女性東



崔一玉



車春鎬



李惠淑



趙陽喜

「문학의 꿈」 어린이잡지부터 잡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취직했다가 결혼해 세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다 5년전부터 다시 습작을 시작했으니 「문학」을 개발해 자신의 일을 찾는 데 나이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쉬지 않고 열심히 하련다」 이카로스의 날개」라는 작품으로 女性東

“少女시절의 꿈 아이들 길러놓고 다시 펼쳐”

가 대부분이다. 결혼전 기자로 일했던 崔一玉 씨처럼 처음부터 문학에 뜻을 세운 건 아니었지만 30대 이후 「자신의 일」로서 새로운 「문학」을 택한 점에서도 적지 않다. 30대 여성들의 활발한 문단 진출은 80년대 들어와 불기 시작한 평등교육열기와도 관계가 있다. 東亞中央한글대 등 언론기관부설 문화센터와 문예진흥원 문인협회 등의 개설된 문예창작작가들은 수강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부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그들의 열의와 노력이 열매를 맺기 시작해 금년 가을 유독 풍성한 수확을 올렸다. 30이 넘어 최근 문단의 데뷔한 여성들을 살펴보면 82년의 金仁淑(소설문학), 83년 權惠秀(소설문학), 84년 權善淑(東亞文壇新人), 85년 姜蘭經(한국문학), 86년 鄭英姬(동서문학) 金慶子(한국문학) 金玉(소설문학) 그리고 87년에 趙順任(東亞文壇新人) 柳英淑(京郷신춘문예)와 10·11월에 등장한 4명 등 점점 수가 늘어나고 있다. 東亞문화센터를 거쳐 이미 문단에 데뷔했거나 데뷔를 앞두고 있는 崔一玉 李惠淑 趙陽喜 등 10여명은 東村문학회를 구성 중년여성신인작가들의 만남장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東亞문화센터에서 4년째 소설 작법과 소설연구를 지도해온 작가 劉賢鍾씨는 여성 특이종의 이후 여성들의 문단 진출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한다. 결혼출산이 이전처럼 많고 문화의 일터인 이들의 작품의 단수한 감각이나 문장의 기교를 넘어서 생활의 연륜과 깊이가 스며 있다. 시인 韓粉順씨(소설문학 편집자)는 「이들 여성작가들의 대거진출로 사회와 생활속의 문제를 여성의 시각으로 본다는 여성해방문학의開花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한다. <池永善기자>